

마가복음 11:12-25(렘8:18-20, 딤후2:1-6)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끝맺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우물거리다가 아멘으로 불쑥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앞에 했던 기도는 모두 무효가 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고 그냥 끝내버린 기도를 들을 때면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찝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기도할 때에 ACTS의 순서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껍데기가 아니라 기도의 알맹이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소위 수난주간이라고 부르는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그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청결 혹은 성전숙청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단지 자신이 먹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멸절된 나무를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13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리고 세우는 고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셨지 이처럼 파괴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연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단지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 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난주간을 그때쯤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4월 14-20일이 수난주간이고,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는 6월과 7월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1:13절 하반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3월 말이라 하더라도 비록 익지는 않았지만 푸른 풋무화과는 이미 달려 있을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길가에 있는 신맛이 도는 풋무화과를 3-4월에도 따 먹고는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전에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꽃무화과 열매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는 무익한 종처럼 무익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문제가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여 죽였다는 것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상징적이며 예언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형식만 갖추고 본질은 잃어버린, 화석처럼 굳어진 율법만 있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12-14절까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소개된 후, 이어서 11:15-1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숙청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20-25절까지 무화과나무 저주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교훈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숙청하신 사건이 무화과나무 저주사건 사이에 샌드위치 식으로 삽입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숙청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숙청 사건을 그저 병렬적으로 기록한 것에 반해서, 마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샌드위치 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외양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어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나무와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만 무성하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행여나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당시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누구나 일 년에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제사에 사용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제사용 짐승을 샀습니다. 역사기록을 보면 감람산에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뇌물을 받고 몇몇 상인들에게 성전 뜰에서 제사장 검인을 받은 짐승들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면 성전 안에서 사는 양은 100,000원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감람산에서 양을 사서 오면 제사장들이 꼼꼼히 검사하면서 똥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느니 다리가 짝다리라느니 하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제사용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구매한 양에 대해서는 짝다리가 아니라 더한 흠이 있어도 이미 검인을 받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30:13-16절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을 세겔로 환전해서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뇌물을 주고 성전에 자리 잡은 환전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سم드리면 1달러를 주면 1,200원을 주어야 하는데 1달러를 주면 500원만 주는 식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 성전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속된 장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 의롭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쫓아내시고, 둘러 앉으시고,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파렴치한 장사치들과 강도들의 소굴이 된다면 그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서는 장사치들과 강도들을 물리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반면 마가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나마 제일 바깥쪽에 있던 이방인의 뜰마저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는 장소로 삼음으로써 이방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원천봉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자신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굳게 문을 잠가두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자기 교인들도 아무 시간이나 기도할 수 없도록 문이 잠겨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서 누가 도적질할까 봐 문을 열어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못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설계하고 짓게 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구조로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의 충동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가장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낸다고 인정을 받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뼈딱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법도 어기고 금식하는 규례도 지키지 않는 이단적인 사람으로 이미 찍혔습니다.

예수를 책잡을 기회를 엿보던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꼭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도 주기적으로 씻어주어야 하는 복잡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이방인이 만졌던 동전을 만졌을 수도 있고, 이방인의 그릇에 앉았던 파리가 자신의 그릇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들로부터 전해진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과 모세 오경이라는 성문율(Written Torah)과 함께 지금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Oral Torah)도 함께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율이 성문율보다 더 중요하여 성문율이 물이라면 구전율은 포도주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 구전 율법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손을 씻는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만큼이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통을 예수의 제자들이 어겼으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38을 보면 예수님 자신도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율법에 능통한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몰라서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껍데기와 외양에 매달렸고, 예수님은 신앙의 알맹이와 본질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막 7:15-16)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들도 신앙의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고,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모든 일에 순종하고 ...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 알맹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열심이지만 마음은 멀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슬픈 척 기쁜 척 연기하는 배우처럼 마음은 없고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가 바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에 행여나 알맹이가 빠져 있거나 않은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가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못하거나 적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껍데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헌금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신령과 진리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고, 신령과 진리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나 형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맹이와 본질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전통, 알맹이를 죽이는 껍데기, 본질을 훼손하는 형식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위선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설레었던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뜻했던 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까. 늘 처음처럼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수난주간 화요일 아침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저 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열핏 무화과나무 사건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는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형식만 남은 성전이 되지 말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가진 제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에 따라 우리도 제사나 율법의 껍데기를 벗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태산보다 무거운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산을 너끈히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산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던 형식과 껍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가진 진실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이 교훈에 귀 기울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